

본문 : 요한복음 8 장 39-50

제목 :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 1. 이민자들의 교회

지난 한 주간 저는 덴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미국내에서 한인목회를 하고 계시는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의 세미나였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 아래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교회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민 목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았지만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세미나 내내 이민목회를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민 교회의 교우들 전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와서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고향이 아닌 곳에 살기에 고향에 있을 때보다 취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차별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쩌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출발선이 다른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어의 장벽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문은 훨씬 좁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민자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가 힘듭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놓인 이민자들이기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다툼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한 이민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하는 목회자들도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목회자들마저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자들끼리 서로가 쉴 품이 되어주고, 서로가 기댈 어깨가 되어주면 좋으려만,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그럴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 기간 가운데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마치 상식이 되어버린 이민교회 내의 부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도 타산 지식으로 삼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과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과 정서와 육체와 사회성 모두 고루 건강한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격과 인간됨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 2.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동일한 아들임을 주장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긴 논쟁입니다. 이 긴 논쟁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 절에 자기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반박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를 사랑할텐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악마의 자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악마의 욕망대로 하는 행태를 보니 진리와 동떨어진 거짓말쟁이인 악마의 자녀들이 분명하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악마이고 귀신들렸으며 귀신의 자손인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악마의 자녀인가의 논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쓰인 악마라는 헬라말은 'diabolos'입니다. Diabolos 는 through 라는 뜻의 전치사 dia 와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ballo 의 합성어에 뿌리를 둡니다. '사이를 갈라 놓는 자, accuser'가 악마의 의미입니다. 악마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죠. 거짓의 아버지이기에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자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가 욕망하는 것은 분열과 혼란과 다툼입니다.

## 3. 상속되는 특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은 악마의 길과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됩니다. 다윗이는 왜 저의 아들이죠? 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타이틀은 생득적인 것이었고, 아들이기에 모든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었죠.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이 수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해는 특권과 영광의 상속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차별된 특권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61 장부터 65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1 장 5-6 절입니다. **“낮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가져다 준 제물과 양식을 먹고 살 특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그들의 중심지인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시온을 신성화 하고, 그곳에서 몰려온 이방인들이 가져 온 좋은 것들을 그들이 누린다는 생각이 바로 유대인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었죠. 예수님과 논쟁하는 무리들도 로마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성전 중심으로 자치권을 부여 받고 성전 장사를 하는 특권 계층이었죠. 그들의 특권도 가문을 중심으로 세습되고 있었구요.

유대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닌 자들을 철저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특권에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영생 또한 상속되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 안에는 영생을 상속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이 죽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뜻인데 영생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든 영생의 공동체에 편입되고 그 특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아브라함의 호적에서 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호적에서 파진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9 장 9-10 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말과

구원 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로 쓰이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은 영생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예수님 당시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막 확대해 버리십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상속의 권리를 막 나눠줘버린 것이죠. 세리같은 죄인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영생을 받았다 선언하셔 버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영생은 자신들만 누려야 하는 특권인데 예수님이 영생을 남발하여 사용하니 속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 4. 특권이냐, 순종이냐?

악마는 절대 좋은 것을 함께 누리려 하지 않습니다. 갈라놓고 배제하고 공유하지 않는 것은 악마의 큰 특징이죠. 이런 악마가 자리를 잡기 쉬운 곳이 어디냐? 종교집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집단이었던 유대 성전종교는 사마리아인들을 품을 수 없고, 삭개오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38 년된 병자가 일어나 아브라함의 자녀로 편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생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영생을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을 막 확장해 나가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시죠(31-32 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과 영생이 생득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상속 받는 것이라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시험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도들도 있고, 힌두교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터번 쓴 사람도 왔다갔다 하고, 불교도나 힌두교도 와 있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이 편한 것은 기독교인들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과장하여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좋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악마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방인도 배제하고, 사마리아인도 배제하고, 세리도 배제하고, 죄인들까지 배제하는 너희가 악마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생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햇살은 비추고, 북한 땅에도 비춥니다. 그 따뜻한 태양 빛에서 소외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힌두교인들도 사랑하시고, 무슬림들도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고 배제하고 선을 그어 버리는 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권의식으로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밀어내는 종교적인 악마성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 5.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됨은 가문이나 혈통으로 그냥 얻어지는 거나 상속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특권과 상속에 의한 아들됨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을 통한 아들됨을 아들됨의 본질로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지요. 여러분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아시시의 거부였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직물 공장을 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눈으로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임금과 고된 노동 속에서 열악한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부와 사치가 다른 이들의 희생의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로 했죠. 또한 그는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상속권까지 포기한 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실천해 갔죠. 욕신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아비인 마귀처럼 편 가르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하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건내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욕망하는 것을 우리도 욕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욕망하며 사느냐가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십시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그 돈 위에서 역사하는 mammon의 강력한 힘을 따르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 우리 욕망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이 표현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